

임달호(任達鎬) 교수님의 逝去를 哀悼하면서



이 은 응

(충남대 공대학장)

1944년 8월 14일생. 1971년 한양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83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 1982년-83년, 85년-86년 캐나다 McGill대학 방문교수. 1984년-85년 당 학회 대전지부장. 1987년-현재 평의원. 1989년-90년 편수위원. 91년-92년 대한전기학회 학술이사. 93년-94년 대한전기학회 편집이사. 1995년 대한전기학회 편집위원장 및 전기기기연구회 간사장. 현재 충남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및 공대학장. 당 학회 감사.

군 제대 후 '69년도 유도기 첫 수업시간에 “東園之草不見基長 日有所長”이란 漢文句를 풀어 주시던 임교수님의 모습에서 내 마음속에 스승으로 모시기 시작하여, '83년 봄 제1호 博士弟子란 특이한 因緣을 맺은지 27년, 지난 1월 7일 幽明을 달리하실 때까지 몸은 스승님의 곁을 떠나 地方大學에 있고 마음속으로는 스승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면서도 尊敬하는 마음만 있을 뿐 제자로서 스승을 한번도 洽足하게 해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스승님을 그리 는 이 글을 쓰기가 慄懼스럽다.

'95년도 電氣學會 送年會(12월 15일) 석상에서 사회자 총무이사께서 우리 임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자 “電氣學會會長을 두번이나 挑戰했다가 失敗한 사람이지만 오늘의 發展한 電氣學會가 있기까지 學會를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께 敬意를 표하고, 믿음직한 앞날을 약속해 줄 후배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전하고 싶다.”고 담담한 感情으로 입장을 정리하여 주시었다. 그 말씀은 '77년~'78년 총무이사, '79년~'80년 조사이사, '81년~'82년, '87년~'88년 재무이사, '87년~'88년 전기기기연구회 간사장, '89년~'90년 부회장, '79년~'95년 평의원 등 학회장을 빼놓고 는 대부분의 학회의 임원을 맡아 貢獻하셨고, 평의원 선거 때마다 최다 득표 또는 차순위를 할 정도로 회원들의 支持를 받았으며 '73년 學術賞, '86년 論文賞, '93년 功勞賞 등을 受賞한 學會에 대한 마지막 愛情의 표시였던가 봅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교수님의 門下生모임인 “에너지變換 研究會” 送年會에서 弟子들에게 學問的 激勵을 해주시고 삶의 價値와 道理를 일깨워 주시면서 '96년 새해의 研究計劃을 말씀하시었는데 그 計劃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他界하시다니 정말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임교수님은 '64년 漢陽大學校에 부임하시어 돌아가시기까지 32년간 열정적으로 講義하시고 研究하신 결과, 국내 최초이며 선진국과 같은 시기에 선형유도전동기의 理論糾明과 應用研究를 이루어 내시었고, 國內 最初로 有限要素法을 이용한 電磁場數值解析理論을 導入하시는 등 學問的으로 開拓者的 役割을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3件的 特許와 7券의 著書, 國內 181편, 國外 41편의 研究論文을 학술논문지에 발표, 게재하시면서 博士: 23명, 碩士: 72명을 지도하시어 4年制 大學教授 14명을 비롯하여 연구계와 산업계의 연구 인력을 배출하셨습니다.

40인승 자기부상열차, 선형전동기를 이용한 자동 반송 시스템, 3차원 입체자동반송장치 시스템, 선형 서보 시스템, 원통형 선형 전동기를 이용한 비접촉 수직 구동 엘리베이터 등 32개의 產學研協同 연구 과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실용단계로 이끄러 놓는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와 같은 教育과 研究의 성과를 認定받아 국가로부터 국민훈장 석류상('82), 한양대학교로부터 백남학술상('87)을 受賞하시었으며, 외국에서도 일본 와세다 대학의 客員研究員으로 委囑되어 活動하시었고, J.F.Gieras박사의

著書에서 교수님의 研究結果가 紹介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뿐아니라 漢陽大學校의 시청각 敎育원장('79~'80), 학생처장('80~'85), 산업과학연구소장('85~'89), 산업대학 원장('89~'92) 등 大學行政家로서 大學發展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대학가의 騷擾로 暗鬱했던 5공시절 학생처장을 역임하시면서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시느라 過勞하시어 健康을 해친 뒤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호탕하게 즐기시던 藥酒도 절제하시고 때로는 몇날 며칠을 모든 것을 잊으신 듯 沒入하시던 研究도 다음날의 컨디션을 염려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시면서도 한결 같이 아침 7시 반이면 研究室에 나오시어 모든 제자들의 신상까지 把握하여 지도하시었다.

卓越한 研究능력, 深奧한 학문, 학자적 良心을 가지신 고매한 人品의 스승이 요구되는 오늘날에 박사과정 3명,

석사과정 9명 제자들의 지도 중임을 잊으신 채 너무나도 갑자기 他界하시어 스승님의 우뚝한 모습이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뜨거운 슬픔을 자아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스승님의 지도를 받은 저희 제자들이 넓고 크신 스승님의 遺志를 받들어 스승님께서 못다 이루신 電氣工學發展에 盡力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평생 동안 研究하시고 弟子들 지도하시느라 잠시도 편안히 쉬지 못하시었으니 못다 이루신 일들을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이제는 평안하시길 스승님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빌어드릴 것이오니 고히 잠드소서.

삼가 冥福을 빕니다.

1996年 1月 9日

門下生 代表 李殷雄